

여자 컬링, 오늘 미국과 첫 경기

2018년 평창 ‘은메달’ 이후 8년 만의 메달 도전
현재 세계랭킹 3위… 사상 첫 ‘금메달’도 기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달 후보로 꿈꾸는 여자 컬링 대표팀이 첫 경기에 나선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펫스 설예지로 구성된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은 12일 오후 5시5분(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라운드로 빙 1차전을 치른다.

한국 컬링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팀 킴’ 강릉시청이 여자부 은메달을 획득한 이후 이번 대회에서 8년 만의 입상을 노린다.

앞서 열린 이번 대회 컬링 혼성 2인조 믹스더블에서는 김선영(강릉시청)과 정영석(강원도청)이 라운드로빈에서 10개 팀 중 9위에 그쳐 메달 결정전에 오르지 못했다.

이어 출격하는 여자 대표팀 경기도청은 현재 세계랭킹 3위로 이번 올림픽에서 입상은 물론, 한국 컬링 사상 첫 금메달도 기대하는 팀이다.

2023-2024시즌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들은 2023년 범대륙(팬컨티넨털) 컬링선수권대회와 그랜드슬램 ‘내셔널’에서 우승, 한국 팀 최초로 메이저 대회·그랜드슬램 정상을 맵았다.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선 전승 우승을 달성했고, 이후 지난해 3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컬링 여자부도 10개 팀이 출전해 라운드로빈 형식의 예선을 치러 상위 4개 팀이 준결승에 올라 메달의 주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앞서 오전 3시30분부터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는 이채운(경희대)과 김건희(시흥미화고), 이지오(양평고)가 출격한다.

생애 두 번째 올림픽에 나서는 2023년 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 이채운이 대표 주자로 꼽힌다.

오후 5시30분엔 코르티나 슬라이딩 센터에서 정승기와 김지수(이상 강원도청)가 남자 스텔레톤 1·2차주행에 나선다. 연합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충북 진천선수촌 컬링장에서 컬링대표팀 선수들이 함께 큰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쇼트 6위… 14일 프리 경기 쇼트트랙 혼성계주는 준결승서 ‘충돌 불운’ 탈락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사진)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인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

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1위는 108.16점을 받은 ‘쿼드킹’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103.07점), 프랑스 아당 샤오잉파(102.55점)가 뒤를 이었다.

3위와 차준환의 점수 차는 9.83점으로 작지 않지만, 역전 메달 획득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접포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으나 이날 경기에선 부진을 만회했다.

함께 출전한 김현겸(고려대)은 함께 69.30점을 받아 26위에 머물면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



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메달 색이 결정되는 프리 스케이팅은 14일에 열린다.

한편 기대를 모은 쇼트트랙은 첫 메달 경기인 혼성 계주에서 충돌 불운으로 입상이 불발됐다.

올림픽에 혼성 계주가 도입된

2022년 베이징대회 때 준준결승에서 탈락했던 한국은 이번에도 입상에 실패했다.

준결승에서 같은 조 미국 선수에게 걸려 넘어지는 악재가 덮쳤다.

준준결승을 1위로 통과한 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황대현(강원도청), 임종언(고양시청)으로 준결승에 나선 한국은 2조에서 캐나다, 벨기에, 미국과 경쟁했다.

레이스 중반 1위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퍼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추격하던 김길리가 충돌해 고꾸라지고 말았다.

대표팀은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획득을 주장하며 소청 절차를 밟았으나 심판은 김길리가 충돌 당시 1·2위가 아닌 3위였기 때문에 어드밴스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제27회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

최종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경기평택유나이티드U15 선수단이 환호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제주시체육회 제공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 13일간 열전 마무리

탐라기·U14유스컵 모두 ‘경기’ 팀 우승

오현중, 고학년부 ‘공동 3위’

올해로 27주년을 맞은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가 ‘경기평택유나이티드U15’와 ‘경기경민위자드U15’의 최종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11일 제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제27회 탐라기전국중학교축구대회’가 지난 10일 결승전을 끝으로 13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제주시 곳곳에서 펼쳐진 이번 대회에는 전국 11개 시·도, 54개 팀이 참가했다. 이들 팀 소속 3000여 명의 축구 꿈나무들은 탐라기(고학년), U14유스컵(저학년) 부문으로 나눠 열띤 경기를 펼쳐왔다.

대회 마지막 날인 10일 펼쳐진 결승전에서도 막판까지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승부가 이어졌다. 오현중은 탐라기 부문에선 경기평택유나이티드 제주시체육회장은 “내년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여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지은기자

탁구 임종훈-신유빈, 혼합복식 ‘세계랭킹 1위’ 등극

작년 12월 월드테이블테니스(WTT) 왕중왕전인 파이널스 홍콩 2025 정상에 올랐던 탁구 ‘황금 콤비’ 임종훈(한국거래소)-신유빈(대한항공) 듀오가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반면 임종훈-신유빈 조는 작년 홍콩 파이널스 우승으로 1500포인트를 받은 데다 꾸준한 대회 참가로 산정 대회 수 최대 8개를 채우면서 1위에 오를 수 있었다.

임종훈-신유빈 조는 2024 파리 올림픽 혼합복식 동메달을 학자한 ‘황금 콤비’다. 연합뉴스

2026년 새해 첫 할인!

노비타 비데 최대 특가!

새해 시작은 노비타와 함께하세요! +

2025. 12. 29. ~ 2026. 2. 28.

무료 설치 | 무료 수거 | 비데 필터 증정 (2개)

살균비데 리모컨형	살균비데 일반형	라인핏비데	더블 살균비데	슬림비데 컴팩트 리모컨형	슬림비데 컴팩트 일반형
BD-H700HO	BD-H500EO	BD-AFE50N	BD-DHS8-010RA	BD-GCS4-03ERA	BD-DCS4-03SB
419,000원 6만원 할인 359,000원	335,000원 5만원 할인 285,000원	299,000원 3만원 할인 229,000원	479,000원 5만원 할인 429,000원	289,000원 4만원 할인 249,000원	244,000원 2만 5천원 할인 219,000원
#리모컨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회전노즐 #다이나믹무브 #강력방수(IPX5)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슬림디자인 #강력방수(IPX7)	#3년무상AS #리모컨 #UV노즐살균 #하루두번전체살균 #순간작수기열 #강력방수(IPX5)/조작부는 IPX7	#리모컨 #3년무상AS #슬림디자인 #강력방수(IPX5)	#슬림디자인 #미스트세정 #강력방수(IPX5)

구입문의 | 제주위닉스 총판 및 A/S센타 · 제주노비타 총판 및 A/S센타 064)758-0990~1 제주시 연남로17(연동)

상성 서비스센터
신광로터리 ● 빙수 ● 오양방원 신제주로터리 ● 마리나호텔

WINIX novita ● 공항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